

남녀대학생의 가족개념, 가족주의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amily Concept and Familism on Family Strengths among University Students

김진희*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Kim, Jin Hee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rends in university students' acceptance of family diversity, familism, family strength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88 university students (193 male, 195 femal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Respondents' recognition of family concept is modified from traditional family notion to modern conception. The general trends regarding the level of familism showed that males' level was higher than females'. The respondents' family strength was influenced by a blood permanency of father, family priority, reverence for parent and the tie that bind child, functional perceptions of family.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erms of influence on university students' family strength was that of familism.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 familism was partly influential to family strengths.

Keywords : family concept, familism, family strengths

I.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전반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인 가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가족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될 뿐 아니라 가족형태도 다양화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사회체계이다. 정형화된 폐쇄체계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개방체계로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처럼 변화의 속도가 빨라 변화를 감지한 순간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때에 가족변화의 실제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양옥경, 2001).

오늘날 가족은 과거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들에 대한 인식 또한 과거보다 많이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분거가족, 동거가족, 주말부부 가족,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기러기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동성애가족의 출현으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초혼 핵가족과 같은 특정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시각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이선행 외, 2009).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며 특정가족만을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남기철, 2004). 가

* Corresponding author: Kim, Jin Hee
Tel: 062-530-1320, Fax: 062-530-1329
E-mail: 0228-jinhee@hanmail.net

족을 둘러싼 변화는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남녀 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 출산율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윤홍식, 2004).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생활을 활성화하고 가족의 건강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가족원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하여, 이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서하진, 2009).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생각할 수 있는 의문 중 하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전종미, 2003). 특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이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다. 가족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가족개념은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있는 가족주의는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삶을 지배하는 중심원리로 볼 수 있다(서선희, 1995; 장경섭, 1994). 그러나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선행연구(김규원, 1995; 신수진, 1998)를 통해 알 수 있다. 더불어 가족가치관이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함께 뒤섞여 가족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수도 있으리라 예측된다(하은하, 2001).

사회와 시대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지녀 온 가장 오래 지속되고 이어져 오는 제도로서 인간 육성과 발달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유영주 외, 2009). 그렇다면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족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모든 가족은 잠재적인 성장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Olson & DeFrain, 2003).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필수조건으로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의존하면서 통합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여 건강한 개인-가정-사회를 발전시키는 순기능을 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건강한 가족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외

부 사회에서 억압당하거나 소외되는 일이 있어도 가족 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용기가 북돋아져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된다(유영주, 2001). 건강한 가정은 가족구성원에게 건전한 가족의 가치관과 가족문화를 전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차적 환경이 된다(윤경자 외, 2009).

가족건강성은 가정의 구조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종종 건강한 가정을 논의할 때 내적인 가족의 기능이 아니라 가족 외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가족구조와 관계없이 다양한 건강가족이 있을 수 있으며, 역기능적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의 유형만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것인 위험한 일이다(조은수, 2007).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바른 가치관 정립도 필요하다. 가치관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불행의 판단에까지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어느 인간, 어느 상황에서나 극히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은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김경신, 1998). 양옥경(2001)은 가족주의 혹은 가족에 대한 인식은 시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전반적인 가족가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가 주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과 가족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족가치관이 변화하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건강 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서병숙, 1994; 유영주, 1994),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어은주, 유영주, 1995; 지영숙, 이영호, 1998)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건강가족의 특성(어은주, 유영주, 1997; 유계숙, 2004; 유영주, 2004; 최선희, 1999)과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연구한 여성노인(경지영, 2000), 청소년(권대희, 2003; 남영자, 박태영, 2009; 박민주, 홍기아, 2007; 배경의, 김은하, 2007), 가족과 부부(양순미, 유영주, 2002; 어은주, 유영주, 1997; 최정혜, 2005), 대학생(김명자, 2004; 서하진, 2009; 이

지형, 2006, 조은수, 2007) 대상의 연구 등이 있으며 한 일비교연구(국길숙, 2008)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성별, 종교, 경제적 수준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아분화,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가족건강성의 포괄적인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개념 및 가치관과 서구로부터 도입된 가족에 대한 개념 및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이지원, 2006), 좀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가족건강성을 정립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발달단계상 청년기의 진입시기인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서서 한 개인으로써 스스로를 책임지고 나아가 사회와 가정의 새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수행하게 된다(박수현, 2003). 자신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계의 확립하고 정서적 독립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의 실천과 직업을 준비하고, 유능한 시민으로서 지적 획득 및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한다. 더욱이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가족형태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변화하는 가족개념과 가족주의가치관이 새롭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래가족의 리더가 될 대학생을 중심으로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주도해나감에 미래의 가족을 이끌어 나가게 될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범주적 가족개념과 기능적 가족개념은 어떠한가, 가족주의 가치관과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 간의 차이는 있는지 살펴보고, 남녀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차이를 파악하여 가족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함께 우리사회 가족들의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 대학생의 가족개념, 가족가치관,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과 그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녀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개념

가족개념(Family concept)은 가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한 가족개념에 대한 파악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빠른 변화로 가족에 대한 정의는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변화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김인숙, 유영준, 2004; 김현옥, 2002). 가족개념은 정의내리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가족은 사회적으로 상호 상반된 존재하에 규정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성과 정치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족에 대한 서로 상이한 이론적 관점들이 존재하기(김경신, 1998; 김인숙, 유영준, 2004) 때문이다. 향후에는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가족이 존재할 것이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변화를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경계를 긋는 것은 어려워 질 것이며, 가족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도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정형화보다는 유연화가, 규칙과 규율의 적용보다는 정서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김미숙 외, 2002; 양옥경, 2001).

가족의 개념은 전통적 가족개념에서부터 현대에 제시된 새로운 가족개념이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개념에서는 공동으로 거주하여야 하며, 결혼을 통한 혈연 또는 비혈연 관계로 맺어진 자녀로 구성되어야 하고, 고유의 가족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 제시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성(gender)과 혈연에 상관없이 전형적인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는 집단형태를 모두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가조구조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편부모가정, 입양가정, 위탁가정, 동거가정, 동성에 가정 등 모든 형태의 집단구성을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한다(김성주, 2002). 가족개념은 구성적 측면으로만 볼 수 없고, 가족의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가족의 기능적 의미는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개념에 대한 논의는 구성적 의미에서 가족의 형태와 범주를 중심으로(김규원, 1995; 김인숙, 유영준, 2004; 양옥경, 2001; 유계숙, 유영주, 2002; 하은하, 2001), 기능적 의미에서는 가족의 핵심역

할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유계숙, 2005)가 그 논의의 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개념을 가족의 범주와 형태에 대한 수용정도를 중심으로 보는 범주적 가족개념과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가족개념으로 구분하였다.

2. 가족주의 가치관

유교적 전통 가운데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이 가족주의이며, 가족주의가 한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한국의 사회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옥선화, 1989; 최준식, 1997).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규모나 형태, 가족관계 등의 일련의 변화에도 여전히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의 뿌리로 여겨지며 지속되고 있다(김덕균, 2005; 서선희, 2003; 이영자, 1999).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렵고 세대 간 위계질서에 기초한 부계혈통 혈연중심의 가족 간 연대가 강조되어 왔다(김인숙, 유영준, 2004; 양옥경, 2001).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적 원리로서,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기본가치로서 삶에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이념이다(최정혜, 2005). 특히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집단주의, 가부장제 등은 가족주의 의식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김혜영, 2001).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하여 서선희(1995)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로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인간관계의 규범으로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보고 가족의 이익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가치지향을 말한다. 신수진(1998)은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지속·기능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영속화·공동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가족주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이 가치를 제일 중요시 생각하며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단결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를 우리나라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를 제일 우위에 두고,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단결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류정현, 2007).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주의의 핵심으로

집중심 사상을 강조하였고(이광규, 1997), 옥선화(1989)는 가족주의의 하위개념으로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부모공경의식과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 의식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가족주의를 구성하는 개념들은 가족우선성을 기본으로 하고, 가족 우선성에 의하여 부계중심성과 부계가문의 발전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 안에서 최고 세대인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 내 인간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며, 형제자매와 친척관계까지 이를 확대하여 이들 간에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과 친척이 한 개인을 둘러싼 가장 의미 있는 유대집단으로서 기능하며 한 개인의 생존토대가 되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주의가치가 중요한 사회규범이 될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가족규모가 축소되며, 가족과 친척의 의미가 달라진 산업사회, 나아가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주의가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옥선화 외, 2001).

3. 가족건강성

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인격이 형성되는 인간발달의 근원이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그 가족이 갖는 고유한 생활습관이나 행동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마다의 분위기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이 서로 다 양하고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광역사회와 유대를 갖으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고무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문제해결 및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가족이라고 하였다(어은주, 유영주, 1995).

Stinnett와 DeFrain(1985)은 건강한 가족이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족원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가족원 성장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가족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유영주(2001)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건강가족이라 할 때의 가족은 개개인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는 가족체계의 건강을 의미하며, 가족체계가 기본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기능이 수행되고 있을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하였다(지영숙, 이영호, 1998).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족건강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실증적 조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건강가족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정(유영주, 2001)으로 연구자에 따라 강력한(strong), 정상적인(normal), 기능적인(functional), 적합한(adequate), 건전한(sound) 가정으로 통용되고 있다(이신숙, 차영은, 2000).

건강 가족적 관점은 오늘날의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는 개방체계로서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는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건강한 가족체계는 개별가족원의 가치관 및 노력 여하, 그 가족이 속한 확대 친족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Olson & DeFrain, 2000). 결국, 가족원 개개인을 육성시키고 사회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가족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 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 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유영주, 2001). DeFrain와 Stinnett(2002)는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헌신, 긍정적 의사소통, 정신적 안녕, 감사와 애정, 질적 시간 공유,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영주(2004)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및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의 특징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족건강성의 특성을 가족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력, 가치공유로 규정하고 있다(어은주, 유영주, 1997; 이지원, 2006; 이지형, 2006). 먼저, 가족유대는 가족원들이 서로 유대가 강하며, 가족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도 서로를 구속하지는 않으며 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특성이다. 건강한 가족의 의사소통은 가족원들이 대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의 표현을 자주한다. 문제해결력은 위거나 문제를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문제와 갈등 발생 시 이를 인정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며,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 가치체계공유는 가족원들 간에 목표를 공유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가족의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가족 가치관이나 규율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

어 가족의 일원임에 긍지를 갖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을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받아 온 가족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력, 가치공유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종합대학교의 재학생 400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대학생으로 임의 표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다. 조사대상 대학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자 12부를 제외한 최종 38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은 49.7%, 여학생은 50.3%의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56.7%, 기독교 22.2%, 천주교 12.6%, 불교가 8.5%로 나타났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 92.0%로 가장 많았으며 확대가족이 8.0%로 나타났다. 가족원수는 4명이 55.7%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명이 32.0%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가족개념

가족개념은 범주적 가족개념과 기능적 가족개념을 포함한다. 범주적 가족개념은 유계숙, 유영주(2002)가 사용한 척도(20문항)를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전통적인 핵가족 가족형태로부터 혼자 사는 독신남까지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범주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 가족개념은 김규원(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개념은 범주적 가족개념 20문항, 기능적 가족개념 9문항 등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가족개념 척도의 신뢰도는 범주적 가족개념의 Cronbach's α 는 .88, 기능적 가족개념의 Cronbach's α 는 .89로 이다.

2)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가치관에 관한 측정은 김성주(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문과 친인척간 교류를 중요시하며,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주의가치관에 관한 질문은 총 21문항으로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격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전통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9이었다.

3)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동의 가치관과 규칙을 가지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가족건강성은 어은주, 유영주(1995)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라는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표 1> 가족개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식차이

		전체	남	여	χ^2
1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	388(100.0)	193(100.0)	195(100.0)	-
2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편모	331 (85.3)	162 (83.9)	169 (86.7)	.576
3	어렸을 때 자신을 입양한 노모와 함께 사는 52세 중년 여성	366 (94.3)	178 (92.2)	188 (96.4)	3.172
4	시집가서 남편을 잃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	337 (86.9)	164 (85.0)	173 (88.7)	1.194
5	남편과 사별하고 애완건을 키우며 사는 84세의 할머니	128 (33.0)	62 (32.1)	66 (33.8)	.130
6	나와 단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나의 조상들	71 (18.3)	40 (20.7)	31 (15.9)	1.512
7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세 명의 중년 자매들	285 (73.5)	125 (64.8)	160 (82.1)	14.861
8	레즈비언(동성애) 커플과 함께 사는 그들의 아이들	207 (53.4)	103 (53.4)	104 (53.3)	.000
9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	347 (89.4)	164 (85.0)	183 (93.8)	8.079**
10	계부와 그가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사는 아이	173 (44.6)	94 (48.7)	79 (40.5)	2.635
11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가의 두 남성	185 (47.7)	99 (51.3)	86 (44.1)	2.012
12	어릴 적 친구와 함께 집에서 사는 77세의 할머니	95 (24.5)	55 (28.5)	40 (20.5)	3.345
13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없는 부부	295 (76.0)	153 (79.3)	142 (72.8)	2.217
14	사별한 남편의 육촌 여동생과 한 집에 사는 미망인	149 (38.4)	78 (40.4)	71 (36.4)	.657
15	이혼한 남성과, 그가 사귀고 있는 여성과, 그녀가 키우고 있는 전남편의 아이	192 (49.5)	93 (48.2)	99 (50.8)	.259
16	2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죽은 부부(자녀는 없었음)의 양가 부모들	122 (31.4)	60 (31.1)	32 (31.8)	.022
17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노부부	351 (90.5)	172 (89.1)	179 (91.8)	.805
18	서울 근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6명의 성인과 12명의 아이들	111 (28.6)	62 (32.1)	49 (25.1)	2.325
19	정자은행을 통하여 출산한 아들과 함께 사는 미혼여성	321 (82.7)	166 (86.0)	155 (79.5)	2.889
20	연애만 하며 혼자 사는 독신남	24 (6.2)	16 (8.3)	8 (4.1)	2.931

** $p < .01$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학생의 범주적 가족개념, 기능적 가족개념, 가족가치관, 가족건강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이들 변인의 성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가족개념, 가족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개념, 가족가치관,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

1) 가족개념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

범주적 가족개념에 대한 분석은 가족형태에 따라 어느 범주까지 가족으로 보느냐에 대하여 남녀대학생의 빈도를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남녀 대학생의 100%가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초혼 핵가족을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대학생의 50% 이상이 가족으로 인식하는 가족형태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부모와 그들이 낳은 자녀(100%), 자신을 입양한 노모와 함께 사는 중년여성(94.3%),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노부부(90.5%),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89.4%), 시집가서 남편을 잃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86.9%),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편모(85.3%), 정자은행을 통하여 출산한 아들과 함께 사는 미혼여성(82.7%),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없는 부부(76.0%),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형제(73.5%), 동성에 커플과 함께 사는 그들의 아이들(53.4%)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은 초혼 핵가족인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포함하여 입양, 재혼, 한부모 가족, 무자녀 별거가족, 동거형제가족, 동성에 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는 넓은 범위의 혈연관계가 존재하며,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가족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정의하는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가족개념을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적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된 형태를 수용함에 있어 부모 또는 부모-자녀관계를 가족 구성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어 가족개념이 여전히 전통과 변화가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국내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박수현, 2003; 유계숙, 2005; 유계숙, 유영주, 2002).

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의 개념을 조사한 기존 연구(김경원, 2005; 박수현, 2003; 유계숙, 2005)에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애가족에 대해 50%이상이 가족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옥경(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기존의 우리사회에 보편적인 가치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순히 가족범위에 대한 영역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전체의 섹슈얼리티와 가치체계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대학생의 인식변화의 단면을 알 수 있다. 가족개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형태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85.0%만이 가족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학생은 93.8%가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남녀대학생의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차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 대학생의 인식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은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

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재혼가정 중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은 복잡한 혈연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남자대학생에 비해 여자대학생이 가족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혼가정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개념에 대해 범주적 가족개념과 기능적 가족개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주적 가족개념은 가족의 구성적 의미에서 가족의 형태와 범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수용정도를 나타내며(김인숙, 유영준, 2004; 양옥경, 2001; 유계숙, 유영주, 2002; 하은하, 2001), 기능적 가족개념은 가족의 핵심역할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김인숙, 유영준, 2004; 양옥경, 김혜영, 2001)를 의미한다. 남녀대학생의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차이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족개념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식차이

	범주적 가족개념		기능적 가족개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최소값	1.00	5.00	1.44	2.00
최대값	20.00	20.00	3.89	3.89
평균(표준편차)	11.60(3.73)	11.48(2.89)	2.92(.42)	2.90(.51)
<i>t</i>	.123		.227	
전체(<i>M(SD)</i>)	11.54(3.39)		2.91(.46)	

범주적 가족개념은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가족범주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적 가족개념은 문항평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제도적 기능을 높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주적 가족개념에 대한 전체 평균은 11.54로 이는 9.49~10.91을 보인 기존 연구들(김경원, 2005; 박수현, 2003; 유계숙, 2005)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로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범주적 가족개념인식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녀대학생의 평균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1.60, 여학생은 11.48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가족개념은 전체 평균이 2.91점으로 가족의 제도적 기능을 다소 낮게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을 인식하는데 있어 제도적 형태중심의 인식보다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수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의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주의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과 성별차이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일반적 경향과 남녀 대학생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변수		전체	남	여	t
하 위 영 역	가족우선성	2.37(.61)	2.44(.64)	2.31(.58)	4.47*
	부계혈통의 영속화	1.97(.75)	2.24(.81)	1.70(.57)	56.75***
	부모 공경의식	2.39(.56)	2.49(.60)	2.29(.50)	12.77***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2.37(.60)	2.56(.62)	2.18(.53)	41.54***
	가족주의 가치관(전체)	2.28(.49)	2.43(.53)	2.12(.40)	42.43***

* $p < .05$, *** $p < .001$

가족주의 가치관의 점수는 전체 대학생은 2.28점이며 남학생은 2.43점, 여학생은 2.12점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간점인 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의 남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김경신, 1998; 옥선화, 1989; 유계숙, 2005)와 일치하고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족우선성, 부계혈통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에서 남녀 대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계혈통의 영속화에 관한 영역에서 남녀 대학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는데,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부모공경의식, 가족우선성에 있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주의가치관의 남녀 대학생의 차이는 미래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에 있어 가족에 대해 보다 덜 전통적이고 덜 규범적이고 보다 덜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 자신보다 더 전통적이고 규범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과 함께 가족을 형성할 경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족주의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이와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대학생의 남녀 간의 차이는 결국 미래에 가정을 형성하여 부부 간의 차이로 귀결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공유하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공동의 가치관과 규칙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남녀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변수		전체	남	여	t
하 위 영 역	가족원간의 유대감	3.59(.68)	3.60 (.66)	3.58(.71)	.1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39(.66)	3.41 (.63)	3.38(.69)	.26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63(.91)	3.71(1.11)	3.55(.65)	3.14
	가족원간의 가치공유	3.11(.62)	3.14 (.63)	3.08(.60)	.93
	가족건강성(전체)	3.43(.63)	3.47 (.65)	3.40(.62)	1.18

가족건강성은 전체 3.43점으로 보통수준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3.47점, 여학생은 3.40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은 3.6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원간의 유대감은 3.59점, 가족원과의 의사소통은 3.39점, 가족원간의 가치공유는 3.11점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차이는 가족원간의 유대감,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공유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대학생의 가족개념, 가족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남녀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전에 가족개념, 가족가치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자대학생의 가족건강성

<표 5> 남녀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상관관계

	남자대학생							여자대학생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1.00							1.00						
2	.05	1.00						.13*	1.00					
3	.07	.14*	1.00					-.19**	.25***	1.00				
4	.02	.03	.60***	1.00				-.09	-.001	.43***	1.00			
5	-.02	.18**	.63***	.52***	1.00			.06	.14*	.55***	.28***	1.00		
6	-.13	.13*	.35***	.42***	.43***	1.00		.01	.16*	.32***	.30***	.54***	1.00	
7	.03	.15**	.05	-.14	.14**	.04	1.00	.10	.30**	.35***	.01	.24**	.32**	1.00

* $p < .05$, ** $p < .01$, *** $p < .001$

1. 범주적 가족개념, 2. 기능적 가족개념, 3. 가족우선성, 4. 부계혈통의 영속화, 5. 부모공경의식, 6. 형제자매 및 친인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7. 가족건강성

간 상관관계에서는 기능적 가족개념과 부모공경의식 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기능적 가족개념이 높을수록, 부모공경의식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가족건강성 간 상관관계에서는 기능적 가족개념, 가족우선성,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의 기능적 가족개념이 높을수록, 가족우선성이 높을수록, 부모공경의식이 높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인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진단 결과, 변인 간 상관성이 .4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확대인자(VIF)는 1.03-1.59의 범위로 모두 2.0이하로 산출되었으며, Durbin Watson 계수(DW)는 1.70-1.79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자료의 회귀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 변인의 영향력을 제시하면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3%였다. 부계혈통의 영속화($\beta = -.28, p < .001$), 가족우선성($\beta = .21, p < .001$), 형제자매 및 친인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beta = .16, p < .01$), 가족개념변인 중 기능적 가족개념($\beta = .14, p < .01$)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계혈통에 대한 영속성이 낮을수록, 가족우선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인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높을수록 기능적 가족개념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자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친족의식과 전통적인 효도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 김명자(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장남의 분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일, 친족 간의 유대 약화 등이 보편화 되고 있으나 아직 자신이 형성한 가족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 직계가족 이념이나 효이데올로기를 이상형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영주(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확대가족이 가족 간의 결속과 공유소속감 및 애

<표 6>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전체		남학생		여학생	
		b	β	b	β	b	β
가족개념	범주적 가족개념	.20	.01	-.14	-.02	1.06	.14 *
	기능적 가족개념	.73	.14 **	.53	.11	.83	.14 *
가족가치관	가족우선성	1.23	.21 ***	.48	.08	2.34	.38 ***
	부계혈통의 영속화	-1.62	-.28 ***	-1.72	-.32 ***	-1.52	-.20 **
	부모 공경의식	.57	.09	1.30	.22 *	-.64	-.09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1.46	.16 **	.32	.03	2.81	.28 ***
R^2		.13		.10		.26	
F		9.96***		3.52**		11.22***	

* $p < .05$, ** $p < .01$, *** $p < .001$

정과 상호지지를 통하여 가족건강성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는 미래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세대에서 어떤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나아가 현대가족에서의 친족관계 강화와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녀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 변인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부계혈통의 영속화($\beta = .32, p < .001$), 부모공경의식($\beta = .22, p < .05$)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설명력이 10%로 부계혈통의 영속화가 낮을수록, 부모공경의식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자 대학생의 경우 가족우선성($\beta = .38, p < .001$),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beta = .28, p < .001$), 부계혈통의 영속화($\beta = -.20, p < .01$), 범주적 가족개념($\beta = .14, p < .05$), 기능적 가족개념($\beta = .14, p < .05$)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가족우선성이 높을수록,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높을수록, 부계혈통의 영속화가 낮을수록, 범주적 가족개념이 수용적일수록, 기능적 가족개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와 결속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준다는 유영주(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가치관은 남녀대학생에 있어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남녀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변인이다. 남녀대학생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성차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녀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변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은 부계혈통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이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여자대학생은 가족우선성,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부계혈통의 영속화, 가족개념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한 부모공경의식은 여자대학생의 경우 변인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변인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건강성 향상을 위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남녀별 개입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할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범주적 가족개념과 기능적 가족개념,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건강성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는 있는지 살펴보고, 남녀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개념, 가족가치관과 가족건강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은 초혼 핵가족인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포함하여 입양, 재혼, 한부모 가족, 무자녀 별거가족, 동거형제가족, 동성에 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는 넓은 범위의 혈연관계가 존재하며,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가족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사회에서 정의하는 행태적 가족개념을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적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된 형태를 수용함에 있어 부부 또는 부모-자녀관계를 가족 구성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어 가족개념이 여전히 전통과 변화가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국내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박수현, 2003; 유계숙, 2005; 유계숙, 유영주, 2002). 범주적 가족개념인식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능적 가족개념은 가족의 제도적 기능을 다소 낮게 수용하여 근대적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집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분석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족우선성, 부계혈통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의 모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남녀 간의 차이는 없으며,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게 가족건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을 보면, 남자대학생은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을, 여자대학생은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영향변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 변인으로 부계혈통의 영속화, 가족우선성, 형제자매 및 친인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기능적 가족개념이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부계혈통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의 경우 가족우선성, 형제자매 및 친인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부계혈통의 영속화, 범주적 가족개념, 기능적 가족개념이 가족건강성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대학생의 가족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남녀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영향변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남녀가 함께 하는 통합 프로그램과 성별에 따른 개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미래에 가족을 형성하고 리더가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있어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을 포함하여 다차원적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대상을 포함시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연령이 대부분 20~25세에 한정되어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 직장인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에만 국한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면밀한 고찰을 통한 관련변인의 탐색과 추가분석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가족개념, 가족주의 가치관과 가족건강성을 연구하였으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각적인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가족개념, 가족주의가치관, 가족건강성

참 고 문 헌

- 경지영. (2000). 여성노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경향과 우울정도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길숙. (2008). 한일 남녀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비교. *성평등연구*, 12, 69-88.
- 권대회. (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경원. (2005). 가족복지실천을 위한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원. (1995).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의식: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 김덕균. (2005). 유교적 가족주의, 해체인가 복원인가-새로운 가족윤리를 모색하며. *유교사상연구*, 23, 109-134.
- 김명자. (2004).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의식과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55-80.
- 김미숙, 김종숙, 김현주, 김혜경, 박옥희, 원영희, 이경아, 이선미, 이선주, 이여봉, 장화경, 함인희. (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성주. (2002). 사회복지사의 가족인식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유영준. (2004).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283-307.
- 김정은. (200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 (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한국사회에서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1), 3-30.
- 김혜영. (2001). 한국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2(1), 79-105.
- 남기철. (2004). 가족개념과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복지동향*, 74, 22-39.
- 남영자, 박태영.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 박민주, 홍기아.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43-51.

- 박수현. (2003).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경의, 김은하. (200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가족 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3), 357-366.
- 서병숙. (1994).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75-287.
- 서선희. (1995). 가족중심주의에 대한 유교적 해석. **가족학 논집**, 7, 21-44.
- 서선희. (2003). 한국 사회에서 가족중심주의의 의미와 그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93-101.
- 서하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순미, 유영주. (2002).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69-81.
- 양옥경. (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4-199.
- 양옥경, 김혜영. (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2), 29-55.
- 어은주, 유영주. (1997).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 남영주, 성미애, 신기영. (2001). 재미동포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가족주의가치와 물질주의가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5-29.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성인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73-180.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계숙. (2005). 가족의 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과 문화**, 17(2), 211-233.
- 유계숙, 유영주. (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79-94.
- 유영주. (2001). **건강가족연구**. 교문사.
- 유영주. (2004). **새로운 가족학**. 신정.
- 유영주, 어은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홍성례, 최희진. (2009). **건강가족의 이해**. 교문사.
- 윤경자, 김정옥, 현은민, 전영자, 유계숙, 김은경. (2009). **건강가정론**. 공동체.
- 윤홍식. (2004).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4, 263-294.
- 이광규. (1997). **한국문화의 심리인류학**. 서울: 집문당
- 이선형, 이경림, 임춘희. (2009).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4), 57-77.
- 이신숙, 차영은. (2000). 성인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이 노모와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4), 21-32.
- 이영자. (1999).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23(3), 107-122.
- 이지원. (2006).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형. (2006).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섭. (1994). **한국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전종미. (2003).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수. (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영숙, 이영호. (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33-250.
- 최선희. (1999). 한국인의 가족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최정혜. (2005). 주말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3(30), 11-26.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하은하. (2001). 가족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가족개념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eFrain, J., & Stinnett, N. (2002). Family Strengths. In J. J. Ponzetti.(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arriage and family* (2nd ed.).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Group.
- Olson, D., & DeFrain, J. (2003). *Marriage and Families-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McGrawhill Company.
-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dton: Little, Brown.

접 수 일 : 2010. 01. 15.
수정완료일 : 2010. 06. 14.
게재확정일 : 2010. 06. 16.